여수거문도 앞바다 참다랑어 찾아왔다

온난화 영향 작년보다 한달가량 빨라

지난 12일 새벽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참다랑어.

여수 거문도 해역에 참다랑어(참치)가 찾아왔다.

아열대성 어류인 참다랑어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해역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월 중 어장이 형성됐으나 올해는 한 달가량 빠른 것이다.

어장은 거문도 동남방 20~30마일(32~48㎞) 해역으로 110해구 부근이다. 지금 잡히고 있는 참다랑어는 체장이 50~70㎝ 크기의 중·소형 개체다.

특히 올해는 해양 온난화로 고등어·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들이 다른 해 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1일 밤에는 선망(旋網·두릿그물) 어선에서 8천여 마리 이상의 참치를 잡아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판했다.

참다랑어는 동중국해 남부해역으로부터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북상, 우리나라 남해안에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동해안 및 일본 동부 연안을 따라 회유해 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말 시험선을 남해안과 서해 중남부 해역에 보내 고등어·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류의 분포와 이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선망(旋網)=그물배(본선) 1척, 등선(불배) 2척, 운반선 2~3척이 선단을 이룬다. 등선이 불빛으로 고기떼를 찾으면 본선이 길다란 그물을 둘러치고, 운반선이 부산항까지 왕복하며 위판한다. 그물은 폭 200m, 길이 1㎞ 크기다.

학교 정수기 관리 '엉터리'?

광주·전남교육청 조사 97%가 '적합' 판정

교육부 특별점검선 더 낮게 나와 조작 의혹

광주·전남 초·중·고교에서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수기 수질검사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각급 학교 자체검사 적합률은 ▲광주 96.7% ▲전남 97.7%로 보고됐다.

반면 시·도 교육청이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로 정수기 관리실태 특별점검(표본조사)을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광주 79.7% ▲전남 50.7%에 그쳤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체조사와 교육청 조사가 무려 17~47%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학교 자체검사가 조작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선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수질검사 때 교육청이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시료를 채수, 검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학교 정수기 자체검사는 매분기에 한 번씩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나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조사대상 정수기 6만8천931개 가운데 95.5%인 6만5천851개가 학교 1차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점검을 실시한 표본조사 대상 4천130개 중 적합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천454개로 59.4%에 그쳐 학교 자체조사 비율(95.5%)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장맛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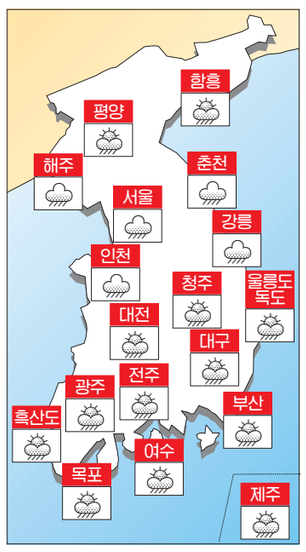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7월 16일 (음 6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한두차례 비	22~27℃
목 포	한두차례 비	21~26℃
여 수	한두차례 비	21~25℃
완 도	한두차례 비	22~27℃
구 례	한두차례 비	22~28℃
해 남	한두차례 비	21~27℃
장 흥	한두차례 비	21~26℃
고 흥	한두차례 비	20~26℃
순 천	한두차례 비	21~27℃
영 광	한두차례 비	21~27℃
진 도	한두차례 비	21~26℃
전 주	한두차례 비	22~28℃
남 원	한두차례 비	21~27℃
흑산도	한두차례 비	20~2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3:32 15:28 썰물 08:47 20:46
여 수 밀물 10:14 22:49 썰물 04:17 16:13



▲해뜸 05:29 ▲해짐 19:47 ▲달뜸 06:56 ▲달짐 21: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 씨						
최저/최고	22/29	21/31	22/29	22/27	21/29	22/30

'伏달임' 한잔하지… 초복(初伏)인 15일 오후,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2구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 정자(亭子)에 모여 이장 양판승(70·사진 맨 오른쪽)씨가 제공한 흑염소 고기와 수박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름 무더위를 물리치는 '복(伏) 달임'을 하고 있다.

/화순=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장마전선 영향 내일까지 비

18일 저지대 침수 우려

광주·전남 지역에 17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6일 10~40㎜의 비가 내리겠다"며 "17일에도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오후께 점차 갤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18일까지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이므로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미쳤던 제4호 태풍 '마니'(MAN-YI)는 16일 오전 ▲최대풍속 초속 30m ▲강풍반경 350㎞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뒤, 17일 오전께 일본 샷포로 동남동쪽 해안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공원 오층석탑 인근 음식물 쓰레기 3t 묻어

'빈들회'측 무단 매립

남구청, 진상조사 나서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내 서오층석탑(西五層石塔·보물 제109호) 인근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 매립돼 남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남구청에 따르면 광주공원에서 노인 무료급식 시설을 운영하는 '빈들회'측이 지난 2월 한밤중 노인들을 동원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탑 인근에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빈들회' 한 관계자는 불법 매립한 쓰레기가 3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석탑 인근에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다"며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구역 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빈들회' 관계자의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오층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높이 7m의 탑으로, 지난 1963년 1월1일 보물로 지정됐고, 반경 529㎡가 보호구역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석탑 등의 경우 지대석(址臺石·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잡은 터에 쌓은 돌)에서 10~25m 이내 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넷 법률상담 폭주

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까지 1,600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3년 7월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올 7월 현재까지 1천60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은 손해배상이나 채무지급명령 등 민사 상담이 1천48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상담 210건(13%) ▲가사 상담 94건(6%) ▲노동 행정 등 기타 소송 252건(15%) 등 순이었다.

올해 초 한 달 평균 30건 안팎이던 상담 건수는 지난 4월 45건으로 훌쩍 뛰어넘은 뒤 ▲5월 64건 ▲6월 56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광주변호사회 홈페이지(www.kjbar.or.kr). /최권일기자 cki@

도교육청, 방학중 '여름학교'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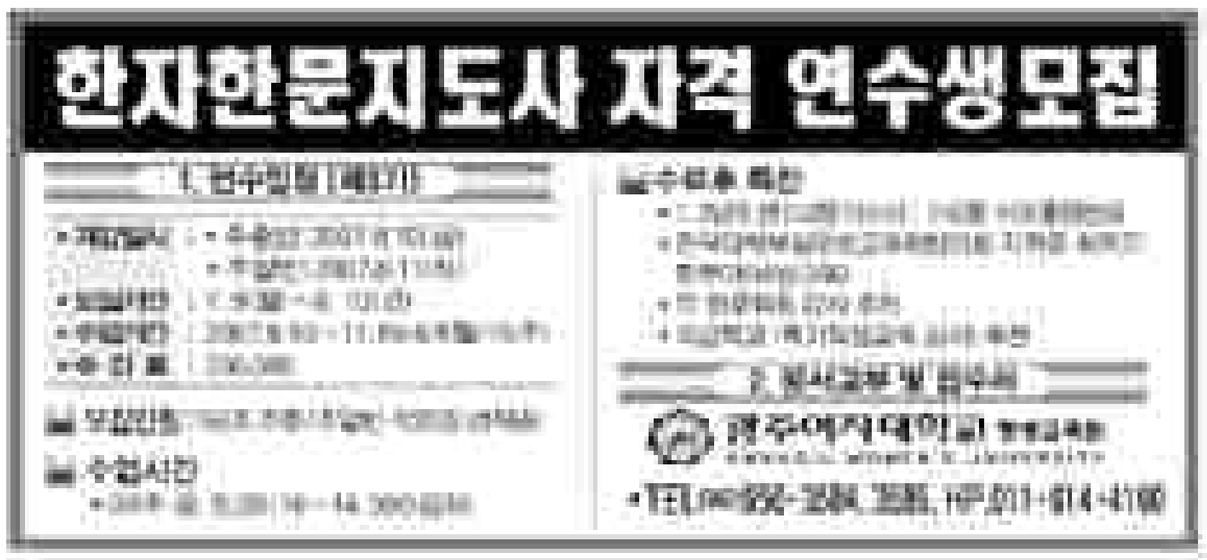
농어촌·저소득층 자녀 대상

전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농어촌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학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생 224명(초등 142, 중등 82명) 등 강사 1천240명(초등 357, 중등 883명)을 확보, 도내 602개 학교에서 각 교과마다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53개교, 중학교 249개교로 참여학생은 1만3천653명(초등 4천470, 중등 9천183명)이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업지도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는 오는 23일부터, 중학교는 18일부터 학교별 계획에 따라 시작하며 학급별 운영시간은 60시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여름학교는 수준별 교육을 통해 1명의 낙오학생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특색사업"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을 통한 장학 활동도 벌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